

이젠 이별해야 할 농경사회의 정서

책읽기의 '과학적 분석'을 바라보는 슬픔

황현산

문학평론가·고려대 불문학 교수

올 한 해 동안 문단에는 두 개의 큰 행사가 있었다. 하나는 「土地」의 완간을 기념하는 축하행사였으며, 다른 하나는 미당 시인의 팔순 잔치였다. 두 모임은 각기 그와 관련된 문학 세미나를 앞세웠고, 나는 어쩌다 두 세미나에서 모두 주제발표를 하게 되었다. 발표의 내용이야 어쭙찮은 것이었지만, 두 차례에 걸쳐 내가 품었던 감정은 조금 특별한 것이었으며, 개인적으로는 그것을 기억해두고 싶기도 했다. 말하자면, 저 농경사회의 정서를 이제 마지막으로 떠나보내는 이별의 의식에 내가 참가하고 있다는 느낌이였다. 박경리 선생의 「土地」에 나오는 경상도 사투리를, 경상도 사람이 아니면서도, 그 어휘 풀이에 크게 의존함이 없이 대부분 알아들을 수 있고, 그 등장인물의 삶을 '풀뿌리 같은 생명력' 운운하는 추상적인 말로 환언하기를 거부하는 마지막 세대에 나는 속한다.

미당에 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미당은 젊어서 보들레르와 니체에 경도한 '모더니스트'로 식민지 농촌의 주변적 삶에서 벗어나 가난과 억압이 닿지 않는 세계를 찾아 헤매며, 그것이 이 세상 어딘가에 있다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저 광막한 바깥 세계에 대한 그리움이 그 출발지에 대한 그리움과 동일한 성격을 지니게 되는 사람의 믿음, 곧 고향을 가진 사람의 믿음이었으며, 또한 계절의 순환과 함께 모든 중요한 갈등이 해소되고, 따라서 모든 시도와 일탈이 무화되는 농경사회의 믿음이다. 그는 고향으로, 이른바 민족적 정서로 되돌아 온다. 그런데 비록 축소되고 약화된 형식이지만, 그와 비슷한 구조의 정신적 편력의 역사를 가슴속에 하나씩 간직하고 있는 마지막 세대가 또한 우리 세대이다. 뒷 세대로 「土地」를 읽고, 미당의 시를 읽겠지만, 그에 대한 감정은 벌써 다를 것이다. 그것들은 모두 '텍스트'가 되고 '과학적으로' 분석되고 말 것이다.

분석이 필요없는 '느낌'의 텍스트들

마지막 세대로서의 우리 세대는, 이제는 교과서에서 사라지게 된 저 알폰스 도데의 단편소설 「별」을 어떤 사회적 문맥 속에 직접적으로 끌어다놓지 않고 읽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역시 그렇다. 「별」은 한때

교과서에 수록된 글 중 가장 인기있는 글이기도 했지만, 그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주인공 아가씨를 마음속으로만 사랑하는 그 착한 목동이 중세적이며 노예적이라는 것이다. 그는 중세적이라면 중세적이다. 그는 영주의 아내나 딸을 가망없이 사랑하는, 저 중세 기사도 소설의 주인공을 닮았다. 그 사랑은 순결한 외양을 가졌지만 정치적 해석을 피할 수는 없다. 그것은 봉건영주와 그 가신 간의 계약관계를 넘어선 정신적 예속을 뜻할 수 있다. 우리의 목동은 노예적이라면 또한 노예적이다. 그는 사랑이라는 이상한 감정 때문에 자신의 처지를, 자신이 착취당하는 계급에 속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그는 사랑의 노예이기 때문에 제 처지를 벗어날 수 없을 뿐더러, 그럴 의지도 없는 노예이다.

그러나 몇 가지 질문이 남는다. 비록 노예라고 하더라도, 한 사람의 가치를 그의 노예근성 여부로만 따질 수 있을까? 다시말해서 그가 자신의 가난한 삶을 불평없이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의 고결한 여러 감정에 담긴 진정성을 부정할 수 있을까? 이 가난한 시골 머슴을 도시 프로레타리아와 동일하게 취급해도 좋을까? 다시 말해서 이 도덕경제적 사회의 인물에게 정치경제적 비판의식을 기대하는 것이 반드시 옳을까? 한 시대, 한 사회의 윤리가 기존질서를 옹호하고 거기 봉사하는 성격을 지녔다고 하더라도, 그 사회의 한 인간이 자기 인생을 설계하기 위해 그 윤리를 주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일까? 한 마디로 말해서, 그가 노예적

아니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우연한 기회에 주인공 아가씨와 단둘이 산중에서 보내게 되는 하룻밤 동안에 그가 어떻게 행동했더라면 그를 칭찬할까?

물론 대답할 것이다. 문제는 그 개인의 인격이 아니라, 그 작품이 지향하는 목가적 세계관이라고, 그 목동에게 비판정신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를 영웅시함으로써 우리 청소년들의 비판정신을 마비시키는 것이 문제라고. 일리가 없지 않다. 그 목동이 소설의 화자로서 그리는 자연과 그의 삶 사이에는 아무런 갈등이 없다. 이런 무갈등의 세계는 목가에서나 가능하다. 그러나 이 무갈등은 자연과 인간 사이의 그것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자연과 그 목동 간의 그것이다. 주인공 딸 스테파네트에게만 해도 벌써 숲과 계곡은 그의 진로를 방해하고 그를 공포에 떨게 하는 것들로 가득차 있다.

유물이 되고 만 순박한 농경적 정서들

이 친화와 공포는 당연히 인간세계에도 그대로 연장된다. 이 소설의 작가가 자연과 사회에 대한 사실주의적 시선을 잃은 것이 아니다. 목동이 무갈등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은 그가 각성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산중생활의 경험과 성실한 목자의 역할로 한 세계를 이해하고 길들였기 때문일 뿐이다. 그에게 루블롱 산의 신비로운 소리는 이 세계에 무한한 가능성의 깊이가 있다는 증거이며, 하늘의 성좌는 어떤 숭고한 가치와 순결성의 역사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증거이다. 스테파네트에 대한 목동의 사랑은

목가적 감정 속하지만, 항상 목가로 대신할 수밖에 없는 그 보편적 가치를 지킨다는 것은 각성한 정신의 투쟁에 속한다. 순결의 의지는 그 자체가 과학한 것이기도 하다. 그가 하늘의 어느 별보다도 더 아름다운 별을 자신의 어깨 위에 올려놓았다고 생각할 때, 그것은 인간의 과거 역사가—비록 혁명의 역사라고 하더라도—늘 배반해 왔으며, 그것의 연장일 뿐인 미래의 역사가 쉽게 도달할 수 없을 어떤 순결성 자체를 또 한 차례 인간의 역사 속에 끌어내렸던 순간의 표현이다. 어느 혁명적 테러리스트가 폭탄을 안고 독재자의 자동차 밑으로 뛰어드는 순간에, 그가 살아야 할 지순의 세계를 단 한번 살듯이.

「별」을 번역하여 우리의 국어 교과서에 실기를 추천했던 사람은(이미 고인이 된 김봉구 교수로 알려져 있다) 한편으로는 청소년의 순결 교육을 염두에 두었을 것이며, 또 한편으로는 이 작품 속에 표현된 바의, 남은 생명이 결코 길지 않을 농경적 정서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을 것이다. 도데가 이 단편이 수록된 「풍차간의 소식」을 쓸 때도, 그는 인간이 더이상 농경적으로만 살 수 없다는 것을 명철하게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 세계를 이제 구제하려 노력할 이유가 없다 하더라도, 그 세계가 품었던 보편적 가치까지 포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믿고 있었다. 오랫동안 우리 젊은이들이 우러러 바라보던 순결의 별 하나가 무참한 돌팔매질을 당해 떨어질 때, 그것을 변호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그런데 이 슬픔이 농경사회의 유물이다.

